

# Family TableTalk

Conversation 08

## 의심 있는 자들을 위한 은혜

### 본문

요한복음 20:24-29

### 생각하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말씀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문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하는지 알 수 있다. 앞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활 후에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본 것에 대해서 차례로 이야기를 했었을때, 도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5절).

역사적으로, 교회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라고 하셨다.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았다. “도마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시거나, “도마야, 네가 어떻게 그럴수가 있니?” 라고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에게 주시고, 도마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상처를 만지게 하셨다.

첫째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의심이 있는 자를 향해서 움직이신다. 주님은 그에게 평강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도마가 과연 이러한 주님의 반응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던가?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몇번이나 자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음을 상기해야 한다. 도마는 여러 방면에서 실패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 장면은 복음의 역동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실패를 거듭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다가 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 적용

- 이 세상과 교회는 일반적으로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가?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도 도마를 그렇게 묘사했는가?
- 당신은 삶 속에서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의심속에서 당신은 편안함이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를 경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가?

###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의심과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심과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용할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신뢰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 by Cameron Cole

Cameron Cole is the director of children, youth, and family at the Cathedral Church of the Advent in Birmingham, AL and the founding chairman of **Rooted**, which promotes gospel-centered youth ministry for churches and families.

cpyu.org



© 2020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